

치 사

**경기북부 지역의 불교음악인들의
소통과 화합의 무대인 “제6회 경기
북부음악예술제”가 열리게 됨을 진심
으로 축하드립니다.**

**오늘의 법석을 마련하느라 애쓰신
경기도 북부불교사암연합회장 인묵
스님과 양평군 불교사암연합회장 호산
스님을 비롯한 여러 대중 스님들의
노고를 치하합니다.**

경기북부음악예술제는 매년 경기북부 지역을 순회하며 그 지역에 살아 숨 쉬는 선인들의 정신과 유무형의 문화를 주제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
더구나 이번 제6회 예술제는 한국 불교사의 큰 스승이자 조계종의 중흥조 이신 “원증국사 태고보우 선사”의 탄생지이자 그 분의 발자취가 곳곳에 서려 있는 용문사에서 스님의 일대기를 무대에 올린다 하니 참으로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.

얼마 전 열린 지방선거로 인해 나라 곳곳에 갈등과 분열로 인한 상처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런 시점에서 경기북부 도민들이 한 곳에 모여 서로의 화합을 위해 음악을 통해 하나 되는 야단법석을 마련하였으니,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 올리는 참다운 공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.

공민왕이 국사에게 위국爲國의 방도를 물었을 때, “다만 그 거룩하고 인자한 마음이 모든 교화의 근본이요 다스림의

**근원이니, 마음을 근본으로 삼아 나라를
다스릴 것”을 당부하셨습니다. 오늘날
지도자들에게 더욱 절실한 가르침이라
생각됩니다.**

**또한 국사께서는 “세상 시비에 전연
관계하지 않고 날마다 맑은 물로 밝은
달을 씻겠다.世間是非都不管 日與清流掃明月”
라고 하셨습니다.**

**오늘 초여름의 상큼한 기운이 완연한
날, 여러분들의 가슴 가득 이 청량함**

**으로 예술제를 마음껏 즐기고 함께
어울려 신명나는 잔치를 만들었으면
합니다. 더 나아가 오늘 이 자리에서
맑은 물, 밝은 달빛이 흐르도록 향기
로운 음악으로 세상의 시비를 넘어
둘이 아닌 존재임을 깨닫는 자리가
되었으면 합니다.**

**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!
예술제의 음악이 이 산하에 울려
퍼지듯, 거룩하고 인자하며 세상 시비를
넘어선 마음으로 우리 사회에 널리**

**퍼져 화합과 통합의 물결로 가득하기를
기원합니다.**

불기 2554년 6월 12일

**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
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**

자 승